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입장 차'

환경단체 "전면 재검토"·도교육청 "운영학교 요구 반영"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관련해 전북교육청과 환경단체 간 입장 차가 크다. 먼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교육 개혁과 교육 자치를 위한 시민연대, 정의당·진보당 전북도당, 전북녹색연합은 1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발암물질·중금속 노출로 환경 안전과 학생 건강을 위협하는 인조잔디 운동장 확대 설치를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인조잔디 운동장 폐해의 심각함을 인식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2012년 하반기부터 인조잔디운동장 신규조성 사업을 중단했다. 또한 관련 예산을 한번도 세우지 않았다고 했다.

2015년 인조잔디 운동장의 중금속 검출 사태 이후 도내 64개교에 설치된 인조잔디 운동장 중 운동부 운영 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는 친환경 운동장으로 교체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10개교가 내구연한 초과, 유해물질 검출 타 시설 증축 등의 이유로 인조잔디 운동장을 철거했다는 것. 이후 도교육청은 인조잔디 설치 학교에 대한 환경성 조사와 매뉴얼에 따라 관리를 해왔으며, 마시도 운동장 정책의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차 추경 예산에 인조잔디 운동장 시설비와 설계비를 편성했다고 주장했다. 더군다나 운동

부가 없는 일반 학교에까지 공모를 거쳐 10개 학교를 대상으로 인조잔디 운동장을 깔겠다고 200억원의 예산을 올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인조잔디 운동장 확대 정책은 유해 플라스틱과 화학물질 중금속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고,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을 지켜려는 정책과 반대편에 있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운동부 운영 학교와 지역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 인조잔디 운동장을 새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북지역 770개 학교 중 인조잔디 운동장이 조성된 학교는 전체의 7%인 54곳 뿐이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6번째로 경기도를 제외하고 가장 낮다. 설치비율이 높은 곳은 제주 33.3%, 대전 26.4% 순이며, 서울은 17%다.

이날 도교육청 이서기 인성건강과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서 꾸준히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축구·야구 등 구기종목의 경우 전국 대회 경기장이 인조잔디로 돼 있어 경기력 향상 및 학생 선수들의 부상 방지를 위해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휴 운동장 사용을 기피하는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도내 환경단체들이 1일 전북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조잔디 운동장 확대 설치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단체 "화학물질·중금속 노출로 학생 건강 위협 성장기 학생 건강 지키려는 정책과 반대편에 위치"

도교육청 "인조잔디 품질기준 강화, 조성 검토 배경 현재 생산되는 인조잔디, 유해물질 발생량 낮아져 학교운영위 심의 거쳐 선정된 소수학교에만 조성"

학생이 늘어나고 있는 데다 지역주민들의 학교 체육시설 이용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어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정책에 불가피한 변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 학교

선정에 철저를 기한다는 방침이다. 도내 모든 학교에 인조잔디 운동장을 조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 거점학교나 체육환경이 열악한 학교 중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소수학교에만 조성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인조잔디 품질기준이 강화된 것도 인조잔디 조성을 검토하게 된 배경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생산되는 인조잔디는 강화된 KS기준(KSF 3888-1, 인조잔디시스템)에 맞춰 생산되고 있어 유해물질 발생량이 현저히 낮아졌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에서는 2년 주기로 KS기준에 따라 인조잔디 운동장 유해성검사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철거 및 교체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서기 과장은 "학생들이 먼지와 거친 노면 등의 이유로 휴 운동장에서 활동하길 꺼린다"면서 "이로 인해 학교체육과 학생 신체활동이 위축되고 있어 능동적인 신체활동을 적극 장려하고자 인조잔디 조성사업을 계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조잔디 운동장 신규 조성시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고, 절차와 기준에 맞춰 신중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과 관련한 업체 선정방식은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 입찰로 진행할 방침이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기술경영공학 1학년생 대학생 광고대회 코삭첼린저상

전주대학교 기술경영공학과 1학년 학생들이 2022년 대한민국 대학생 광고대회(KOSAC)에서 코삭첼린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소풍과 참여로 함께 하는 사회공동체'를 주제로 이번 공모전에서 기술경영공학과 1학년 학생들은 논리적 문제해결(OL)수업과 연계해 공동주제 주자 갈등 문제해결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플라스틱 재활용 제품 디자인 공모전'에서도 총장상, 대학혁신지원사업단장상, 지역혁신센터장 상을 받았다.

이번 공모전을 준비한 기술경영공학과 1학년 학생들은 "문제발견 및 주제 선정 절차가 가장 어려웠지만 모두의 지성이 활용돼 의미 있는 결과물이 탄생하는 과정을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전했다.

장현애 학과장은 "성인학습자들의 직업적 경험과 전공적 지식을 결합하는 수업방식이 이뤄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성인학습자들의 다양한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교수법을 확장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술경영공학과가 속해 있는 전주대 미래융합대학은 2019년부터 교육부가 실시해 온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LIFE)'에 전북지역 4년제 대학 중 유일하게 선정돼 특성화고(구 실업계고) 출신의 재직자만 30세 이상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특별 입학 전형을 전면 실시하고 있다. /정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오늘까지 '구인·구직 매칭데이'

전주비전대학교(총장 정상모)는 1~2일 이틀간 전주 왕의자빌 호텔에서 미취업자 및 졸업예정자 20명을 대상으로 구인·구직 매칭데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취업의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취업(채용)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계캠프는 기업들의 채용경향을 살펴보고 각 기업에 대해 정확히 분석해 취업전략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이뤄졌다. 프로그램은 학생 인성과 역량, 직무 중심 자소서 작성, 그리고 면접컨설팅 등으로 구성됐다.

2일차에는 면접 심화교육을 실시해 면접 프로세스, 면접 자제, 1분 스피치 등을 익히고, 도내 주요 중견기업의 현장면접도 진행됐다.

캠프에 참여한 한 졸업예정자 학생은 "취업 부담감 속에서 힘들어 하던 때에 캠프에 참여하면서 구체적으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며 "자기소개서 작성과 면접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만족스러웠다"고 말했다.

박삼훈 취업지원처장은 "이번 구인·구직 매칭데이가 취업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도내 전주비전대는 최선을 다해 다양한 맞춤형 채용 프로그램을 기획하겠다"고 말했다.

정상모 총장은 "전주비전대학교의 맞춤형 취업캠프는 학생과 산업체의 니즈에 기반한 직무역량을 제대로 끌어올린 최적의 프로그램으로, 우리 학생들이 취업지원처에서 마련한 취업프로그램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채용까지 이어지는 성과를 이루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지역 기업들과 동반자 관계 구축

전북대 LINC3.0 사업단, 가족회사 멤버십 제도 마련 디와이이노베이트 등 11개 기업과 협약식·설명회

전북대학교 LINC3.0 사업단(단장 송철규)은 가족회사 멤버십 제도를 마련, 지난 11월 30일 설명회 등을 갖고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전북대학교와 가족회사 간 동반성장을 위해 기업이 연회비 납부를 통해 본교와 산학협력 관계를 체결하는 멤버십 제도다. 가족회사는 대학과의 인적, 물적, 기술적 교류는 물론, 전북대학교 기술혁신선도형 LINC 3.0 사업의 각종 산학협력 기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이날 행사에는 디와이이노베이트(주), 멜리엔스 주식회사 등 11개 가족

회사 대표 및 임직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전북대와 협약을 체결하고, 멤버십 제도에 대한 설명회도 가졌다.

이를 통해 전북대 LINC3.0 사업단은 공동연구 활동과 지식 및 기술의 교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글로벌 교육모델의 개발, 공유협업 생태계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산학협력력을 이룰 계획이다.

송철규 단장은 "전북대는 가족회사와 함께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잘 다듬어 산업현장과 사회에 능동적이고 가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학교 LINC3.0 사업단은 가족회사 멤버십 제도를 마련, 지난 11월 30일 설명회 등을 갖고 동반자 관계를 구축했다고 1일 밝혔다.

전주기전대 LINC3.0사업 PRE-창업경진대회 개최

전주기전대학 LINC3.0사업단(단장 조덕현)은 1일 교내 플라자강의실에서 LINC3.0 프리창업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창업에 열정이 가득한 재학생을 대상으로 창업 아이디어 발굴과 신규 아이템 사업화 기회를 마련하고, 학생 창업으로 이어지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총 7팀이 참가해 △일출과 일몰 시간의 태양을 가려주는 차량용품 아이템, △편백나무를 이용해 만든 반려동물 건강용품 아이템, △새싹인삼스마트팜 아이템, △청년들이 만들어가는 농촌문화사

업, △구강상태를 점검해주는 첫술,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반려동물 산책 사업, △노화방지, 심신의 안정을 시켜주는 백년초 차 등으로 진행됐다.

이 대회에서 운전자들의 시야를 방해하는 요소인 햇빛을 가려주는 차량용품품을 선보인 햇빛막 가리개팀이 대상을 차지했다.

창조경제 혁신센터 최재영 심사위원은 "최근 편의를 위한 일방적인 자동차 용품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사업 추진 가능성과 시장경쟁력이 기대된다"고 평했다. /정은성 기자



서거석 교육감은 1일 전북도교육청 청조나라 시청각실에서 직원초회를 열었다.

"여러분이 전북교육 대전환 주체"

서거석 교육감, 직원초회서 자발성 강조

서거석 교육감이 "여러분 모두가 전북교육 대전환의 주체입니다"라면서 직원들의 자발성을 강조했다. 서거석 교육감은 1일 도교육청 청조나라 시청각실에서 열린 직원초회에서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위해서는 직원 여러분이 먼저 마음의 전환을 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무엇보다 자발

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북교육 정책을 여러분 각자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의지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책은 학교 현장의 요구에서 출발하므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서 교육감은 "행정은 학교 현

장의 필요에 의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지금까지의 관행과 사고에서 벗어나 현장중심으로 대전환하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전북교육 대전환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반영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취임 후 5개월 동안 함께한 직원들을 격려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기전대 '부안군민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성료

전주기전대학 LINC 3.0사업단(단장 조덕현) 최근 부안청년UP센터에서 열린 '부안청년을 위한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성황리 마쳤다고 전했다. 이 행사는 부안청년의 취업역량강화를 위해 △취업타로상담 △MBTI성격유형 검사 △스피치컨설팅 진단을 통한 이미지 컨설팅 등 체험 활동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됐다.

조덕현 사업단장은 "내하이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가 부안군민의 취업역량강화에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대학과 지역사회의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 도내 노년층 대상 심상 치유프로그램 진행

원예체험 통해 삶의 질 향상 도모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 연구단 은다라 지역인문학센터(센터장 서정화)는 지난 9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총 10주간 효자 4동 주민센터와 함께 도내 소외계층 노년층을 대상으로 심상 치유 프로그램인 꽃 청춘 노인을 위한 나라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원예체험을 통한 심상 치유를 기반으로, 도내 노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돕기 위해 개설된 프로그램이다. 식물을 식재하고 다양한 원예체험을 경험함으로써 인간의 탄생부터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묘사하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정리할 수 있는 시간으로 총 10회 실시했다. 참여한 한 수강생은 "원예체험을 하는 동안 내가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었고, 과거를 회상함과 동시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꿈꿀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만족해 했다. 프로그램은 진행한 유미경 강사는 "도내 취약계층 어르신들이 화제가 된 행렬수록 표정이 밝아지고 삶의 의지를 다지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치유의 힘을 얻었다"며, 프로그램에 대한 애정을 보였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대학교 HK+연구단(www.ja.kr/hk)과 센터 SNS(인스타그램·페이스북)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정은성 기자